

2. 요엘 - “여호와의 날이 임하리라!”

요엘 2:28~29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And afterward,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Even on my servants, both men and women, I will pour out my Spirit in those days.

요엘과 여호와의 날

요엘이 활동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성서학자들은 그의 메시지의 내용을 보고 추측하는데, 아마도 기원전 587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가 제사장과 제사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상황으로 기원전 4세기 전후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장 후반까지, 그리고 2장 마지막부터 3장까지의 두 부분으로 내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여호와의 날’에서 인간들이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흩어졌고, 지금까지 당해보지 못했던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나라와 민족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풍요로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그 때,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날에는 능히 당할 자가 없는 심판의 날이고, 그 날에는 원통한 일들의 탄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은 모두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나나날 일들입니다.

요엘은 1장 1-20절에서 여호와의 날에 임할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1:4)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꼭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려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1:11~12)”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강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은 초장을 찾아 이리저리 헤맬 것입니다. 요엘의 경고는 이렇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끔찍하지만, 더 극심한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고.

요엘서 역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평탄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인생을 포기할 만큼 힘든 상황에서 주변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잘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불쑥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산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것입니다. 부유하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을 '못 산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역시 올바른 말은 아닌 듯합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못'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오해와 분노는 우리 자신이 세상을 보는 '잘 못된 시각'에서 존재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날이 되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까 봐 가식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미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모임과 만남에서 화장을 하고 옷을 갖추어 입는 것도 가만히 보면 드러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언젠가 길을 가며 우연히 어떤 여자 분의 신발을 보게 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다리가 긴 줄 알았는데, 뒷굽이 그렇게 높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식사 자리에서 제가 아는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 제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제가 감동을 잘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목회자는 교인들의 좋은 모습만 보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군 장성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옆에 우리 교회 청년이 통역장교의 입장에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자리에 있었노라고. . .

"목사님이 그렇게 감동하는 그 분이 제가 알기에는 그런 분이 아니라서~"

사실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감추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회개’가 힘든 이유는 바로 그러한 두려움 때문이죠. 예언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예언’이란 아주 간단한 공식에 근거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는 이런 말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에 따른 결과를 두려워하는 까닭은 숨기는 데 따른 결과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피터 윌슨의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중에서)

“죄는 자기기만을 즐기고 자기기만은 침묵을 즐긴다.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깨지고 망가지고 상처 입고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을 속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 죄를 고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분이 원래 의도하신 내 모습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편 1-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직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서 5장 16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려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왜 성경은 죄를 고백하라고 할까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자기기만은 죄에 대하여 침묵하게 만들죠. 죄를 고백하는 것은 침묵을 깨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고, 정직하게 선다면 필연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어쩌면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마음 가운데는 교만과 위선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무섭게 질책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 23:27-8)

하나님께서 어찌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상태죠. 디트리히 본 회퍼는 그의 책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십자가에 이르는 길이 열립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위하려고 합니다. 내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소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죽는 일에 이르기까지도 다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교만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인간은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형제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가장 지극한 겸손입니다. 죄의 고백은 힘들고 사람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듭니다. 한 사람의 교만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형제 앞에 죄인으로 서는 것은 견디기 힘든 치욕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죄를 고백함으로써 옛 자아는 형제의 눈앞에서 고통스럽고도 치욕스럽게 죽음을 맞습니다.

이 같은 겸손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현제들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거듭거듭 강구합니다. 우리의 눈이 너무 어두워져서 이처럼 낫아지는 데서 오는 약속과 영광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요엘서 2장 13-14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온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아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아시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3-14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는 권면입니다.

인터넷 예화 공작소에 나와 있는 예화인데, 적절한 비유가 될 듯합니다.

■ 어리석은 독수리

독수리 한 마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있는 오수를 날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 마침 독수리의 눈에 죽은 양 한 마리가 둉둥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독수리는 쏜 살같이 내려와서 양의 시체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꽉 움켜쥐고는 그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

다. 그려는 동안에도 죽은 양은 계속 물살에 따라 폭포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독수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고기를 뜯어먹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으니까 폭포에 떨어지더라도 아무 상관없어!' 그려는 사이에 죽은 양은 점점 흘러 나이아가라 폭포에 와서는 물줄기와 함께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제서야 독수리는 먹기를 중단하고 위로 솟구쳐 오르기 위하여 날개에 힘을 주었다. 그러나 이미 독수리의 발톱이 죽은 양의 몸속에 깊이 박혀서 빠지지를 않았다. 결국 이 독수리도 양의 시체와 함께 폭포수에 휩쓸려 죽고 말았다.

+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썩은 송장과 같은 것을 볼들고 죽음의 순간까지 자만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데 미련이 남아 있어 죽음의 순간까지 볼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그만 버리시지요,

죄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신이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는 것이고,

죄에 자신의 발을 담그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박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상태를 지적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죄에서 발을 빼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아닌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는 우리의 삶에서 '죄에 문제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분깃점이 됩니다.

요즘 이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적인 타락인 듯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참을 수 없었다' 혹은 '본능이다'

지난 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비서였던 김지은씨 사건을 놓고 불륜인가? 아니면 위계에 의한 강간인가?를 놓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 사람의 잘못인가? 한 남자의 성욕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제대로 표명하지 못한 사람이 잘못인가?

그런데 이런 논쟁으로 인해, 잘잘못을 가린다고 해서 죄의 결과와 또 다른 죄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하여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성욕 앞에서 내가 이기려고 노력한다고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년의 한 남성이 젊은 비서 앞에서 한 없이 무너져 내릴 때, 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면 그런 행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 죄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부재'와 연관되는 것이 아닐까요?

죄를 극복하고 싶다는 안간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의 문제가 신양인의 본질이 아닐까요?

심판의 경고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부재 가운데, 죄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처럼 대단한 변화입니다.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인류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태양에 의존하고 있는 지구라는 사실이죠.

지구가 유지될 수 있는 ‘중력’이 태양과 관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타락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돌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 분을 떠나간 인생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와 오프라 윈프리가 기독교를 떠난 이유를 아시나요?

오프라 윈프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질투’ 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뜻을 밝혔다.

브래드 피트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님은 ‘너는 내가 최고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 .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중심적이다.”

심지어 C. S. 루이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영광에 집착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했다.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려는 것이 그에게는 “칭찬을 바라는 허영심 강한 여자”처럼 보였다. (J. D. 그리어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중에서)

지구가 존재하려면 태양계에서 자신의 궤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중심에는 태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존재를 가능케합니다.

이런 상상이 가능하죠.

태양이 지구를 너무 사랑해서 지구에게 중심을 내어 줍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지키는 방법은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지구가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때, 우리

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과 근거위에서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시편 16편 11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의 말씀은 절망을 소망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8-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엘의 예언하던 시대에는 ‘하나님 부재’로 인해 죄악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난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에 계시면, 하나님에 우리의 하나님에 되 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다 미래적인 일들입니다. 즉, 죄 가운데 함몰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었다는 것은, ‘내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다가오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들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요엘을 통해 아주 혁명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민주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 여호와’와 ‘하나님’이 결합된 말입니다. 즉, “우리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이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고,

‘우리’여호와 라는 말은,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엘과 요나서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범위를 넘어서서 ‘온 세계’로 지평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자기중심적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하와이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한 교회는 아주 작은 한인교회였습니다. 미국의 Lutheran Church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교인이 처음 와서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 무식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요. 그런데 요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동일하게 존재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여호와의 날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2) 가공할만한 군대의 침략(2:1~27)

요엘은 계속해서 암울한 예언을 한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2:1)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2:2)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2:10)”

하지만 아직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 유다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가올 재앙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누가 알겠느냐”(2:13~14)

3) 젊은이는 예언을 할 것이다(2:28~3:21)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이 자기 죄 때문에 겪은 고난을 보상해주는 것 이상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2:24)

이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2:28) 수세기 후 유대 절기인 오순절에, 베드로는 헤롯 성전 뜰에서 이 예언이 방금 성취되었다고 선포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행 2:14~21) 그 날 삼천 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